

노인 일자리 임금 제각각 ... "형평성 잃어"

공공근로사업·일시 채용 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달라 각각 '최저임금' '생활임금' 적용에 '8350원 vs 9700원' 일부선 "하는 일 서로 비슷하데 임금차 이해 어려워"

제주도내 국비 지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들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비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국비 지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시급 8350원(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초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 2122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도비 100억원과 복권기금 24억원 등 총 124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290개 사업 1174명, 서귀포시는 272개 사업 871명을 채용한다.

이에 반해 제주시는 클린하우스에

서 일하고 있는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 노인들에게는 1시간당 970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도우미를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선발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과 생계비, 동종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는 현재 제주도 26개 읍면동에 533명이 배치됐다. 올해 제주도 예산액은 75억 3700만원으로 예산은 국비(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클린

하우스 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미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한 60대 할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우리는 최저임금을 받고 클린하우스를 지키는 옆집 할머니는 우리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똑같이 동네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임금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근로자들에게는 간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있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클린하우스 도우미와 실제 임금 차이는 한달에 2~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대로지자



1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2019 청령문화제' 개막식에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경제단체 등의 대표들이 '청령 제주', '더 큰 제주'라는 문구를 들어 보이며 청령한 제주 만들기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도민과 함께 청령한 제주 만들자"

2019 청령문화제 개막 23일까지 체험행사 '다채' 워크숍·청령문화기행 등

제주지역 청령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19 청령문화제'가 1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경제단체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령문화제는 '도민과 함께, 깨끗하게·투명하게·청령하게!'를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청령사회 민관협의회 28개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 도내 주요 기관·단체 임직원,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2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내부 고발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청령영화 '스노든'을 상영하고, 21일은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청령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을 갖는다. 이어 22일 제주 시청 민원실 앞에서 다채로운 청령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청령문화존 운영을, 23일은 어린이와 학부모 등 가족단위 도민들이 참여하는 청령문화기행을 진행해 청령문화 실천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청령문화제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가 아닌, 도민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제주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것처럼 공직사회와 제주사회 전반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된다면, 미래사회발전의 원동력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윤기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채용

서귀포시는 하반기 채용 예정인 '읍면동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사업' 참여자(기간제 근로자) 164명을 이달 25일까지 읍면동에서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60세 이상 장년층이다. 이번 채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근로시간이 기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변경에 따른 것이다.

모집 분야는 ▷가로청소 인력(47명) ▷주말 대체 운전인력(39명) ▷주말 대체 수거인력(78명) 등 3개 분야로,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근무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해 사업지원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760-2933. 문미숙기자



파도를 가르며 뿜내는 기량 19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린 2019 제주오픈국제서핑대회에서 한 서퍼가 파도 위에서 멋진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남원 의귀천 범람위험 해소될까

서귀포시, 2.5km 구간 정비 2021년까지 새 교량도 설치

서귀포시 남원을 의귀천의 범람 위험이 있는 2.5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작됐다. 시는 2016년 태풍 '차바' 때 하천

이 범람해 농경지 7.4ha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집중호우 때마다 자주 범람하는 의귀천 정비사업에 2021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교량 3개소를 정비하고, 2개 교량은 추가 설치한다.

시는 의귀천 범람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했고,

현재 토지 64필지 중 72%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치고 최근 착공했다. 총 사업비도 당초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144억원에서 지가 상승을 고려한 용지보상비를 고려해 16억원 증액된 160억원으로 최종 변경승인을 받았다.

시는 하천 정비시 기존의 확실적인 전석쌓기에서 벗어나 하천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원형 보존하고, 주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해 하천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적인 하천 환경을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잔여지로 매입한 토지는 차량 교차구간이나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토지수용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2021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시공원서 고기 굽다 걸리면 과태료

제주시, 여름 맞아 특별단속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공원 내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공원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최근에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삼화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라지구 등을 집중단속하고 단속대상은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 기타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므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공원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불법 취사행위는 물론 공원내 흡연·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 실시해 맑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고대로지자

제주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내가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여성, 대학생, 위기청소년,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여성** 만19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임산부 포함)
- 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만9~24세 청소년 흡연자
- 대학생**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중 흡연자(대학원생 포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흡연자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300인 미만)에 근무하는 흡연근로자

- 이용안내** 평일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제주도내 대상자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합니다.
- 신청** :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SNS
- 지원** 상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 등록 후 6개월간 사후관리
- 문의** 064-758-9030, 010-8814-9030

4박5일 무료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회 이상의 금연 실패 경험자
 - 흡연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 흡연 지속자
- 날짜**
 - 월 1회이상, 수요일~일요일(요일 고정)
 - 2019년 6월 26일~30일 / 7월 10일~14일 / 7월 24일~28일 / 7월 31일~8월 4일 / 8월 21일~25일 / 8월 28일~9월 1일
 - *상기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시모집입니다.
- 캠프특전**
 - 흡연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폐CT 포함)
 - 금연약물요법(니코틴패치, 캄, 경구용 약물 등) 제공
 - 생활한복,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제공
 - 전문적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심리상담 제공
 - 금연 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층 제주금연지원센터
 - 전화: 064-758-9030/ 010-3068-9030
 - *회기당 선착순 10명 제한입니다.

일 정 표 (예)								
요일/시간	1일차(수)	2일차(목)	3일차(금)	4일차(토)	5일차(일)			
08:00-08:30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조식/ 바이탈 체크/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 바이탈 체크			
08:30-09:30		전문의 상담 및 약 처방	담배가 주는 많은 것들	그림동기 강화상담Ⅳ	시후관리 안내 및 개별 내소 예약 상담, 보조제 처방			
09:30-10:00		나의 몸을 건강하게				전문상담 (검진결과상담)		
10:00-10:30							금연에도 약이 있나요?	수료식
10:30-11:00								
11:00-11:3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제주금연 지원센터			
11:30-12:00		건강검진 & 심리평가	나의 체력 알아보기	금연캠프 노하우 공유 (캠프 수료자)				
12:00-14:0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4:00-14:3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4:30-15:0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5:00-15:3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5:30-16:0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6:00-16:3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6:30-17:3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7:30-18:3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8:30-20:0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20:00~	개인 휴식 및 취침	개인 휴식 및 취침	개인 휴식 및 취침	개인 휴식 및 취침				

*프로그램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